

『신여자』에 나타난 근대 여성들의 글쓰기 양상 및 특성 연구*

유진 월*

- I. 근대와 저널리즘
- II. 여성의 글쓰기와 여성적 글쓰기
 - 1. 신문명의 시대, 신여자의 사명-논설
 - 2. 연애의 시대, 결혼제도 비판-소설
 - 3. 개조의 시대, 신여자의 신생활-수기와 수필
- III. 여성지 『신여자』의 위상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과제번호 KRF2004-002-A00081)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한서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국문초록

김일엽은 개인을 넘어선 여성 연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으며 1920년 여성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여성지 『신여자』를 창간했다. 『신여자』는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의사개진의 장을 제공하고 문단활동의 장으로도 기능했다. 여권의식의 확산과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잡지로서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고루 수행했다. 여성간의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 의식의 저변확대와 여성의 사회 참여 등을 이끌어내려는 의지가 있었던 『신여자』는 여성의 삶과 의식을 진지하게 드러낸 여성잡지이다. 『신여자』의 위상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이는 『신여자』에 글을 실었던 당시 여성들의 글쓰기 양상의 특성이자 의의이기도 하다.

첫째, 『신여자』의 탈남성적 의도의 중요성이다. 『신여자』는 여성 문제를 여성의 시각으로 보고 여성의 표현방식으로 쓴 여성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진정한 여성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둘째, 모든 여성을 함께 아우르는 자매애적 시각이다. 『신여자』는 지식의 유무와 계층의 차이와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는 범여성연대 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셋째, 해체론적 시각의 중요성이다. 『신여자』의 중심 이념은 중심적인 것의 주변부에 대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식인의 비지식인에 대한, 이념의 생활에 대한, 권력 있는 자의 없는 자에 대한 우위를 뒤집어보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넷째, 다양한 글쓰기 방식의 중요성이다. 『신여자』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방식의 글을 게재하였다. 여성적 글쓰기를 공적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작업이 여성운동의 주요 과제라고 할 때 『신여자』는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이상의 특징들로 볼 때 『신여자』는 역사적 의의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근대 여성담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여성지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핵심어 : 김일엽, 신여자, 근대, 여성지, 탈남성, 자매애, 해체, 여성적 글쓰기

I. 근대와 저널리즘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일제의 식민화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생성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적일 수밖에 없다. 봉건주의 사회의 구태를 벗고 개인의 발전과 합리성의 구현이라는 근대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그러한 가치와는 상반되는 억압적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식민화 정책의 주체인 일본을 통해 새로운 문명이 유입되었고 동경유학생들이 신진문화의 세례를 받으며 일본식으로 변형된 서구의 근대를 유통시켰다.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저널리즘이 새로운 담론 생성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러한 근대화 과정에서의 하나의 양상이었다. 이들은 일제에 저항하는 애국정신을 고취하거나 진보와 개혁을 외치는 새로운 의식화의 장으로서 기능했으나 또 때로는 일제의 정책을 선전하고 황국신민의 기치를 드높이는 파행적인 프로파간다의 기능을 하기도 했다.

1896년 「독립신문」 창간을 시작으로 1898년 「매일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 이른바 민간일간지가 등장하면서 근대적 대중매체의 총아인 신문이 본격적인 담론생산의 근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지식인들은 관주도의 일방적인 정보전달을 넘어서서 대중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¹⁾하게 되었다. 인쇄술의 발달로 서적의 출판이 가능해졌고 잡지와 학회지, 동인지 등의 출판이 활발해지면서 근대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다양한 지면을 통해 표출하고 사회의 주요 담론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담론형성의 장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 남성들은 언어와 언어 표현의 장을 독점함으로써 남성의 우월성을 더욱 견고히 다졌으며 남성적 사고를 사회에 전파하는 언어독점사업의 주체가 되었다.

1) 정선태, 『심연을 탐사하는 고래의 눈』(소명출판사, 2003), p.47.

물론 남성들에게도 변화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들을 계몽하기 위해 신문과 잡지를 통한 부녀교육이 시도되었고 이러한 의도에 따라 최초로 발간된 여성용 잡지는 1906년 신민회 소속 가정잡지사회에서 발간된 『가명잡지』였다. 1908년에는 『녀자지남』이 발간되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여성지는 동경유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1917년 발간된 『여자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계』는 당시 동경유학 중인 남학생들이 편집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성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잡지로 보기는 어렵다. 1920년에 신여성의 리더이자 여성문학 1세대인 일엽 김원주가 여성의 힘으로 만드는 본격 여성지를 표방하고 『신여자』를 창간²⁾하였다. 『신여자』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³⁾ 새로운 담론형성의 핵심에 섰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비록 4호로 단명했지만 남성이 주도하는 공적 담론 형성과정에 여성이 스스로 길을 열고 능동적 주체로 참여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며 당시의 남성담론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2호의 분석을 통해서⁴⁾ 여성의 다양한 글쓰기 양상을 고찰하고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신여자』의 가치 평가로 나아가고자 한다.

근대 여성들의 글쓰기나 김일엽 등 신여성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다. 김일엽의 작품들이 『신여자』에 수록된 것이 많기 때문에 『신여자』 연구도 많이 된 것으로 혼동되는 경향이 있지만 『신여자』에 대한

2) 편집 겸 발행인은 ‘빨낭쓰 부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녀는 자금을 지원한 이화학당의 빌링스 선교사의 부인이었다. / 문옥표 외, 『신여성』(청년사, 2003), p.55.

3) 김일엽은 ‘편집고문 양우촌 선생 한 분 외에는 전부 우리 여자로 조직되어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혹은 ‘여자의 손으로만 하여가자는 작정’이므로 남성들이 보내준 글을 신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어서 여성의 힘으로 만드는 잡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방정환 등 남성의 개입에 관한 자세한 연구를 뒤로 남겨둔다.

4) 선행연구로서 『김일엽의 『신여자』 출간과 그 의의(2002)』에서는 『신여자』 전반을 개괄하였고 『『신여자』와 근대여성담론의 형성(2003)』에서는 창간호를 분석하였으며 본고에서는 2호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단독 연구⁵⁾는 거의 없어서 4개호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다. 본고는 『신여자』 전체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하는 다섯 개의 논문 중 세 번째로 앞으로 3호와 4호에 대한 연구를 후속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II. 여성의 글쓰기와 여성적 글쓰기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다. 언어의 운용은 지적인 훈련과 교육에 의해 가능한 분야로서 근대교육이 이루어지고 사회활동의 기회가 생기면서 비로소 여성의 글쓰기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오랫동안 언어를 독점해온 남성들은 여성의 글을 온당하게 평가하지 않았다. '여성들의 저술은 그것이 마치 여성 자신인 것처럼 대접을 받는다. 그래서 비평은 기껏해야 젓가슴과 둔부의 지적 측정이 될 뿐'⁶⁾이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이다.

여성의 글쓰기는 남성의 글쓰기보다 어려운 조건하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물로서의 저술물이 남성의 글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보다 저급한 것으로 무시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우열의 문제가 아니다.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서로 다른 물질적 조건 하에서 문학작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에서 유물론적 명제에 기초하여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글쓰기란 물질적인 요소들에 기초하고 있고 이 물질적인 조건들이 작가의 시각, 즉 남성작가나 여성작가의 사회에 대한 인

5)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생각의 나무, 2000.) /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소명출판, 2002.), pp.70~72.

6) 김성곤, 『포스트모던 소설과 비평』(열음사, 1998), p.159.

식을 지배하게 된다⁷⁾는 것이다. 물질적 조건들은 예술양식의 선택과 그 속에서 선택된 장르, 문체, 분위기에 영향을 끼치며 독자와 인물묘사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상대적인 가난과 예술적인 훈련부족으로 여성들은 창작 활동을 하는데 명백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대 한국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땅의 여성들은 ‘봉건주의가 지배하는 / 피식민지의 / 여성’이라는 삼중의 억압적 상황에서 글을 쓰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펼쳤다. 이 당시에 글을 쓴 여성들은 대체로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었으며 여성의 문체적 상황에 대한 자각과 변화를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신여자』의 필자로는 김일엽, 나혜석, 김명순 등의 여성문학 1세대 문인들과 김활란, 정종명, 박인덕, 허영숙 등 당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던 선진적 여성들이었으며 백합화 등의 필명으로 필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가장 많은 글을 쓴 사람은 김일엽으로 시, 소설, 수필 등의 문학작품은 물론 권두 논설을 비롯해서 필자가 명기되지 않은 논설도 거의 김일엽이 쓴 것으로 보인다. 2호 목차에 있는 20개의 글 중에서 7개가 김일엽의 글이고 목차에는 안 나와 있고 잡지 내부에 들어있는 소소한 글들을 포함하면 책의 거의 반 정도가 김일엽의 글인 셈이다. 이것은 김일엽의 집지에 대한 열의와 글쓰기 능력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여성 필자를 구하는 일이 어려웠음⁸⁾을 반증한다. 김일엽의 글이 많고 나머지 필자들도 거의 신여성들로 이루어진 이 잡지가 당대 여성의 보편적인 글쓰기의 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1920년 당시 글을 쓰는 여성은 아직 이 여성그룹에서 확장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그 한계는 수용할 수밖에

7) 미셸 바렛, 신현옥 외 역,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여성사, 1995), pp.76~77.

8) 김일엽이 여성적 글쓰기의 장을 마련하고 독자투고를 매우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호로 단명할 때까지 독자투고로 게재된 글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식인이 아닌 평범한 여성들의 글을 함께 게재하려는 의도는 실현되지 못한 셈이다.

에 없다. 여성필자의 **확산**은 더 긴 시간을 요했다.

가명으로 표기되어 필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글 가운데도 김일엽의 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필활동을 하는 여성의 수가 극소수인데다가 주제와 구성을 갖춘 긴 글을 쓰는 것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일엽은 일엽, 원주, 한잎 등의 이름으로 글을 썼는데 「청상의 세월」의 필자인 김편주(金扁舟)가 일엽과 동일인물이 아닌가 추정된다. 편주가 일엽편주(一葉片舟)를 연상시키는데다가 김원주에서 김편주로 가운데 한 글자만 의도적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할 수 있고 「청상의 세월」이 『신여자』에 실린 글 중에서 분량도 길고 내용도 흥미로우며 짜임새 있는 글이라는 점에서 평범한 여성의 글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여성적 글쓰기의 관점에서 『신여자』를 고찰하고자 한다. 여성적 글쓰기는 남성적 텍스트처럼 일차원적인 논리구조에 달혀진 텍스트가 아니라 유동적이고 시적이며 의미가 다양하게 열려있는 글쓰기이다. 여성적 글쓰기는 남성들처럼 타인을 지배하고 조정하기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주고 남성과 동등해질 때까지 여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언어를 잃었던 여성들이 이제는 자신의 육체와 욕망을 사랑하고 다른 여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글을 쓰려는 것이다. 여성적 글쓰기의 문체는 이중, 혹은 다중의 목소리, 맞지 않는 구문, 직선적이지 않은 반복적이거나 축적적인 구조, 열린 종결부 등의 특성⁹⁾을 갖는다.

여성의 언술행위는 공식화된 표현양식으로서의 시나 소설 뿐 아니라 일기나 편지와 같은 사사로운 문학형태, 그리고 문자화되기 이전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떠도는 언술행위인 신세타령, 생애 이야기, 비방 전수, 전화 통화, 술 마시며 이야기하기, 라디오 방송으로 전달되는 살아가는 이야기 등 다양한 자기 진술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다양한 자기 진술의 양식들은

9) 게일 오스틴, 심정순 역, 『페미니즘과 연극비평』(현대미학사, 1995), p.88.

여성이 가부장제적 지배질서 안에서 받는 억압에 대해서 적응하고 인식하고 저항하는 전략들이다. 표면에 나타나는 겸양과 순종, 인내와 체념의 이면에는 욕망과 영웅적 과시, 정열과 분노의 진정한 언어가 숨어 있다. 이러한 여성적 글쓰기를 공적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작업이 여성운동의 주요 과제¹⁰⁾이다.

여성의 언어는 남성의 언어에 비해 수다스럽고 무질서하며 더듬거린다고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여성들의 언어가 남성들의 논리적인 말의 규칙에 일치하지 않음을 표시하기 위한 저항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침묵이 강요되어 온 주변집단으로서의 여성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억압의 문화에 저항하고 지배적인 남성언어의 횡포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여성의 언어는 권위에 저항하는 언어이며 여성의 자기진술은 가부장제 문화의 억압구조 속에서 체제부정적인 속성을 갖는다.

이러한 여성적 글쓰기의 측면에서 볼 때 여성들에게 기존 언어에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언어 표현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신여자』는 매우 중요하다. 다음의 글은 김일엽이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 일호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여자라는 잡지는 신여자 편집동인 몇 사람의 것이 아니요 조선여자 전체의 것이라고 (중략) 사회나 가정을 물론하고 구에서 신으로 넘어가는 이때에 무수한 희비극이 우리 사회의 이면에 잠겨있을 터인데 이렇게 아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시부모의 학대, 남자의 전횡, 완고한 구식가정, 여자교육과 여자의 인격무시, 여자의 진로 어느 것이 우리가 부르짖으려는 재료가 아니고 어느 일이 우리가 개척하여야 할 도정이 아니겠습니까. 여자의 글은 무엇이든 환영하여 받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¹¹⁾

10) 김경수, 『페미니즘과 문학비평』(고려원, 1994), pp.12~13.

11) 투고환영, 『신여자』 2호(1920.4.) / 이후 인용은 필자와 글의 제목만 밝힘.

이는 여성을 글쓰기의 주체로서 세우고자 하는 김일엽의 의도가 담긴 글로서 '무엇이나 환영'한다는 표현에서 기존의 장르 개념에 얽매이지도 않고 주제와 소재도 가리지 않으며 오직 여성의 의사 표현을 중시하겠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여성의 글쓰기와 여성적 글쓰기가 통합되어 있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 방식은 당시 남성들의 글에서도 보이는 양상인데 이것이 근대 글쓰기 방식의 한 특성일 것이다. 근대 초창기의 남성들은 아직 서구식 장르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글쓰기 훈련이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게 되지만 근대적 글쓰기 방식을 먼저 습득한 이후에는 자신들보다 훈련이 덜 된 여성들의 글을 열등한 것으로 비판하기에 이른다. 남성들의 경우는 근대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모방 양식으로서의 다양한 글쓰기가 나왔지만 여성들의 다양한 글쓰기는 그에 내재된 여성적 글쓰기로서의 의도와 특성들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비록 당시의 다양한 글쓰기 방식이 남성 여성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양상이라 해도 분석의 기준이나 그것을 보는 입장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엘리트 여성으로서의 신여성이 아닌 일반 여성들의 글쓰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잡지나 신문 등을 포괄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신여자>는 불과 4개월간 간행되었고 그 짧은 기간 중에 일반 여성들에게 글을 쓰게 하고 게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신여자>에서는 일반 여성을 의식화하고 포용하려는 김일엽의 의도와 의지를 높이 살 뿐 구체적인 성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신여자』는 4개 호에 모두 73편의 글이 실려 있는데 그 중 논설이 20편 / 소설 6편, 시 8편, 평론 1편, 수필류 19편 / 기타¹²⁾의 글이 19편¹³⁾이다.

12) 기타의 글에는 축사, 머리말, 편집후기, 기사, 소개, 전기, 독후감, 만화, 전설 등이 포함된다.

논설이 27 퍼센트, 문예물이 47퍼센트, 기타가 26퍼센트로 분포되어 있어 문예물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글의 종류와 배분을 선택한 편집 의도를 존중하여 이 분류를 중심으로 글의 특성을 고찰하도록 한다.

1. 신문명의 시대, 신여자의 사명-논설

“우리가 이때에 나서서 유치한 우리 사회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희생에 이바지 아니하면 우리 조선 여자는 영원히 암흑한 구렁에 빠져서 광명한 빛을 못 보고 말 것을 앓아이다.”

근대에 계몽이라는 거대담론을 이끈 주체는 저널리스트였다. 저널리스트란 본래 신문기자와 같은 언론인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당대 조선의 저널리스트에는 작가가 상당수를 차지했고 문학작품도 저널리즘의 성격이 강했다. 이는 작가들이 작품을 개별 출판하기보다는 신문 잡지를 통해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고 읽을거리가 별로 없었던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문학작품조차 정치적인 저널리즘의 성격을 띠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것이 강하게 드러나는 글은 논설류인데, 순수한 이론이나 학설을 뜻하는 ‘론(論)’과 이를 풀어서 설명한 ‘설(說)’이라는 전통적인 방법이 근대적 신문의 등장과 함께 ‘논설’이라는 형식으로 등장해 계몽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이용¹³⁾되었다.

김일엽은 「우리 신여자의 요구와 주장」에서 당시 조선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야흐로 새문명이 도래하고 개조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를 맞이한 신여자의 사명을 주창하고 있다. 남성 중심의 사상과

13) 줄고, 김일엽의 『신여자』 출간과 그 의의, 『비교문화연구』 5호(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2.), pp.78.

14) 정선태, 앞의 책, p.24.

인습이 여성을 구속하고 사람으로서의 본연성을 잃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이의 원인으로 남성의 부덕함과 여자의 무지를 들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인습적 도덕을 타파하고 합리적인 새 도덕으로 남녀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최선의 생활을 누리야 함을 주장했다. 여성에게 있어서 정신적 자유와 함께 물질적 자유의 중요성을 지적하였고 구사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여자의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했다.

변화하는 시대를 보는 명확한 현실 인식, 여성에게도 반성을 촉구하는 태도에서 엿보이는 남녀에 대한 공정한 시각, 신여성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 지도자적인 자각과 리더쉽 등 이 글은 당시 새로운 문명을 향해 나아가려는 신여성 김일엽의 활기찬 의욕이 담긴 글이다. 본격적인 여성 저널리즘의 장을 열고 여성 중심적 잡지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당당한** 어조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신여자』가 **담당한** 여성담론 형성의 장으로서의 역할이다.

김활란은 「남녀평등문제」라는 대담 형식의 글을 게재했다. 갑을의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필자가 김활란으로 명기되어 있는 이 글은 논설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논설은 독자들에게 흥미를 주고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담의 형식으로 변형하는 경우가 있다. 남녀평등이란 하늘이 부여한 권리인데 남성들이 그것을 시인하느니 부인하느니 하는 자체가 부당하며 설사 여자가 자유권을 잃었으면 스스로 잃은 것이고 또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지 누가 주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으로는 여자교육의 부당함이나 무용을 외치는 남성들에게 비평보다는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상의 논리적인 여성해방론의 전개는 지식인 여성으로서의 여성계몽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준다. 교육의 기회를 가진 여성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상을 인식하였고 당시 여성 사회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자각하고 있

었다. 논설은 다분히 남성적 언술방식을 차용한 것이지만 남녀평등과 여성 해방이라는 주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개조'와 '변개'라는 당시의 화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이 여성의 교육과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경우에도 남성에게 유리한 쪽으로 방향설정을 한 반면, 여성들은 인간으로서의 여성인식과 해방을 통해 진정한 개인으로서의 존재를 확립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2. 연애의 시대, 결혼제도 비판-소설

“연애의 생명은 가정을 떠난 곳에 존재하느니라. 다만 둘이 화원에 소요할 사이가 연애니라. 일차 가정을 지으면 곧 연애는 소멸 아니치 못하느니라.”

2호에는 김일엽의 「어느 소녀의 사(死)」와 백합화의 「애의 추회」라는 두 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 「어느 소녀의 사」는 18세의 소녀 명숙이가 자신을 난봉꾼인 어떤 부자의 셋째 첩으로 시집보내려는 부모를 피해 한강철교에 가서 자살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부모에 의한 강제결혼, 축첩제도, 황금만능주의, 여성의 인권, 배운 여성의 진로 등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여성문제들이 들어 있다. 결혼 당사자의 의사가 전혀 존중되지 않고 부모에 의한 강제결혼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명숙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모와 신문사에 각기 한 통씩의 편지를 남기고 자살한다.

여식이 만일 학교예를 아니 다니어 글자를 못 배웠더라면 오늘 이 거사가 없었을 걸로 아옵나이다. 양위 부모님께서 여식을 학교에 입학시키시던 그 때의 마음은 여식으로 하여금 사람 되라고 하신 것이지 사람 되지 말라 하심은 없드려 헤어리건대 아니신 듯 하오니 (중략) 왜 사람이 되도록 남의 정실이 되게 못하시고 구태여 노예나 다름없는 민○○의 부실이 되라고 강요하시는지 여식은 야속한 마음을 이루 측량할 수 없나이다.¹⁵⁾

15) 김일엽, 「어느 소녀의 사」.

명확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두 언니의 파행적 삶을 비판하는 분별력을 갖추었다는 것, 부모라 할지라도 옳지 못한 결정에는 불복하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 약혼자의 집안이 몰락했지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의리를 주장한다는 것, 자신의 문제를 언론사에 널리 알려 여성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사회적 자아로 성숙했다는 것, 부당한 부모의 강제에 대항하여 죽음도 불사하는 용기를 지녔다는 것 등 명숙은 과거의 작품에서 볼 수 없는 여성의 새로운 모습¹⁶⁾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성의 변모는 인용부에서 보듯이 교육의 영향이 크다. 김일엽은 이 작품을 통해서 여성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의 효과를 보여준다. 신문사에 자신의 문제를 적은 편지를 보내는 행위는 명숙이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잘 알고 있음을 뜻하며 이는 『신여자』를 창간한 김일엽의 의도와도 통하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개인의 희생을 통해 보여준 명숙의 저항은 봉건적 구습에 의해 억압받는 대다수 여성의 삶을 문제화함으로써 다른 여성의 삶에 영향을 준다. 당시 개인이 그것도 여성이 완고한 봉건주의와 맞서는 길은 죽음이라는 극단적 방법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을 통해 의식화된 소수의 여성들은 기꺼이 자신을 던져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이 작품은 그러한 문제적 사회를 반영하고 있으며 억압의 문화에 저항하고 지배적 남성의 전횡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여성의 자각을 보여준다.

남편이 첩을 두자 '세상에 남의 첩 되는 년같이 고약한 년은 없겠다. 죽으면 모두 아마 지옥으로 갈 걸' 하며 열을 올리던 명숙의 모친이 막상 자기 딸 셋을 모두 돈을 받고 첩으로 보내는 작태를 보여주면서 여성이나 모성이 여성의 동지가 아닐 수 있고 무지하고 의식 없는 여성은 오히려 여성

16) 이 작품의 첫장면이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한 논문이 있다. 버스라는 근대적 공공교통수단의 사용이 '근대적 인식론을 통한 여성문제의 해결'이라는 작가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압축하는데 효과적이며 이를 상당한 문학적 성과라고 보는 것이다. / 이태숙, 「여성해방론의 낭만적 지평」, 『여성문화연구』 4호(2000.) p.185.

에게 더욱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여성관계 또한 냉철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성문제는 한 개인이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며 공론화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여성문제는 언제나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거대담론에 밀리곤 했다. 더욱이나 당시는 독립이라는 당면과제가 있었고 그와 아울러 봉건주의적 사회의 계몽과 개조를 통해 신문명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중요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인류의 반인 여성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고 여성과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백합화의 「애의 추회」는 '사랑의 추억'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학교 교사가 된 김정숙이 여학생이던 오년 전 한 남학생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연애를 회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숙은 같은 교회를 다니던 남학생을 마음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도 역시 정숙을 좋아했는지 어느 날 연애편지를 한 장 보낸다.

아아 엔젤이시여 선녀시여 용서하십시오. 이 글을 올림으로 불량학생의 장난으로 도외시 마십시오. 제가 귀양을 경모함이 결코 일조일석이 아니오라 장구한 세월에 쌓이고 쌓인 영의 합치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중략) 엔젤이시여 누이시여. 저는 오는 주일 토요일에 사랑스럽고 정들었던 금수강산 삼천리 고국강산을 두고 멀고 먼 태평양 저편 산 설고 물 설은 미국을 향하여 떠나 고자 하옵니다.¹⁷⁾

근대는 여러 가지의 도전과 그에 따른 갈등과 변화를 낳았다. 그 중에서도 연애만큼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사람들을 흔들어 놓은 것은 없을 것이

17) 백합화, 「애의 추회」.

다. 용어 자체도 새로 수입되었으며 이전의 어떠한 사랑의 양식과도 다른 것으로 오직 청춘 남녀간의 사랑만이 'love'의 번역어인 '연애'가 되었다. 당시 개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했고 그런 의미에서 개인은 억압될 뿐 아니라 금기시 되는 영역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극대화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연애가 신문명을 업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연애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자유로운 개인의 자각이라는 근대적 명분을 획득하면서 오랫동안 지배적 결혼양식이었던 조혼과 강제결혼을 거부하는 반역의 기호로서 이 땅의 지식인들과 대중들을 파고들며 새로운 사상으로 전파되었다.

서양선교사들의 교육기관 설립과 일부 젊은이들의 일본유학은 서구 문화를 수용하는 관문이었고 20세를 전후한 청춘남녀들은 서양의 문물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연애를 받아들였다. 연애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시대의 아이콘이었으며 오늘의 관점에서는 전적으로 사회적 영역에 속하는 일이면서도 당시에는 다분히 공적인 차원에 속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연애는 사회의 변화를 앞서가는 새로움이자 나아가 진보와 연결되어 있는 매우 선진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세계 개조의 목소리가 높던 시절 연애는 '개조론의 대중적 변종이었으며 새로운 가치인 행복에 이르기 위한 통로이자 문화, 예술, 문학의 유행을 자극한 주 원천'¹⁸⁾이기도 했다. 지식인 청춘 남녀에게만 가능했던 근대적인 기호가 바로 '연애'였다. 연애의 양상은 다양했고 김일엽은 여성의 육체적 순결이 무의미하며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진실되기만 하다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다는 신정조론을 주장하므로써 여성 성담론의 선두에 서기도 했다.

「애의 추회」의 경우처럼 청춘 남녀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상대를 찾

18)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현실문화연구, 2003), p.8.

고 느낌에 따라 편지를 한다든지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정도도 당대에는 새로운 연애의 양상이었다. 편지로 오랫동안 사모했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직전해야 마음을 전하는 청년과 그 고백 앞에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하다가 마음 속으로만 계속 그리워하는 정숙의 모습은 새로운 문명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 땅의 청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더 배우고 일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은 개인적 행복인 연애보다는 조국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근대의 선구자로서의 인식을 보여준다. 연애편지 한 장에 오랜 동안 청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정숙은 자기의 마음은 끝내 전하지 못한 채 여학교를 졸업하고 여학교 교사가 되어 역시 지식인 여성으로서 교육에 투신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두 사람은 당시의 현실이 배운 사람은 개인으로서의 삶보다는 사회를 위한 삶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어느 정도의 개인적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임을 자각하고 있다. 결국 연애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양립되기 어려우며 개인과 국가 사이의 가치가 충돌할 때 보다 중요한 가치는 후자였다. 이것은 이 땅의 근대가 사회 계몽적 가치를 매우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내밀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이 작품은 연애라는 새로운 여성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서로 보지도 못하고 결혼하던 결혼제도하의 사회에서 여성이 어떤 남자를 마음에 두고 그리워했다는 고백은 자칫 부도덕하다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고백을 하기에 당시 여성들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고 바로 그러한 힘든 고백을 표현한 글이기 때문에 굳이 필명이 필요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김일엽이 쓴 '연애애화' 「나는 가오」는 서간문 형식을 빌어 쓴 일종의 소설이다. 가상현실을 표현하는 소설의 독서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 독자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읽히기 위해서 친구의 이야기를 우촌선생에게 전하는

편지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재혼가정의 문제로 동경 유학길에 떠밀려간 경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여 자살을 하려 하고 한 유학생이 그녀를 구해준다. 빛을 내가며 경자 부녀를 돕던 그는 조흔한 아내가 있었고 경자와의 관계가 본국에 알려지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경자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는 가오’ 하며 만주로 도피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에도 순수한 사랑이 해피엔딩이 되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가정과 사회제도 탓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비극적 연애담을 통해 재혼가정의 문제, 조흔 제도, 부모의 전횡, 여성의 경제적 자립 등 사회 문제를 제기하였다. 여성이 경제적 능력을 갖지 못했을 때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도 위기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여성의 물질적 토대가 정신적 독립만큼이나 중요함을 일깨운다. 여주인공은 사랑을 믿으며 삼십이 넘도록 떠나간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전통적 여인의 수동적 기다림의 자세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소설이면서도 편지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주관적 논평과 감상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공감대 형성에 큰 이점을 가진다. 침묵하는 병어리 그룹으로서의 여성이 비로소 언어를 사용하게 된 상황에서 언어의 창조자로서의 저자보다는 수용자로서의 독자를 더 고려한 방식이다. 보다 많은 여성들과의 의사소통과 감정의 교류를 목표로 하는 여성적 글쓰기의 특성이라 하겠다.

이상의 작품들을 통해 새로운 문명의 기호로서의 자발적 연애상을 볼 수 있었지만 본격적인 연애의 시대는 20년대 중반 이후 입센의 여성해방 사상과 엘렌 케이나 콜론타이의 연애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본격화된다. 그에 따라 여성들의 작품도 다양한 연애의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3. 개조의 시대, 신여자의 신생활-수기와 수필

“우리는 신시대의 신여자로 모든 전설적, 인습적, 보수적, 반동적인 일체의 구사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허구로서의 소설을 문학 장르의 정점으로 간주하는 근대적 문학관습은 자전적 소설, 자서전, 일기, 편지, 수필 등 다양한 서사양식을 주변적 문학이나 하위문학으로 서열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식들이야말로 주변적 존재, 소외된 존재의 자기표현이나 비주류적 경험의 재현 가능성을 내포한 매체들¹⁹⁾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신여자』는 여성들의 글쓰기 양식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러한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수용하였다.

특히 이 당시 여성의 글 중에서 독특한 분야는 체험적 사실을 문학적 수사나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써내려가는 수기였다. 이는 문학적 체험이 많지 않거나 문학 수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솔직한 표현방식이라는 점에서 보통 사람들의 진솔한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2호에 실린 수기로는 정종명²⁰⁾의 「간호부 생활」과 백합화의 「독신처녀의 생활」이 있다. 「간호부 생활」에서는 ‘이 병원에 와 있는 간호부들은 호상냥한 학력 있는 사람으로 이 뜬 세상 거친 물결에 헤메고 올디기 할 수 없이 자선사업인 간호부 생활에 들어온 사람이 많다’고 하여 간호부들이 고학력 여성이면서도 오히려 고통 받던 여성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성 교육의 결과가 사회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간호부는 고되지 만 전문적인 직업이라는 점과 양옥집, 전등, 목욕실, 침상, 식당 등의 서구적 환경에서 테니스를 치고 풍금을 뜬 서구적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자

19) 박혜숙,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여성문학연구』 8호(2002.12.), pp.8~9.

20) 정종명(1896~?) : 독립운동가, 간호사. 범사회주의 여성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를 창립했고 이후 황신덕 김할란 등과 근우회를 조직하고 활동했다. 사회주의계 여성을 대표하면서 독립운동을 했고 해방 후 북한에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심을 가지면서도 야간근무를 하거나 환자들에게 시달리는 외롭고 힘겨운 직업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말하고 있다. 정종명은 후에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선두주자로서 활발하게 여성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글은 그 이전에 씌어진 글로서 새로운 직업의 갈등과 고민을 담은 감상적 소회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소설 「애의 추회」를 썼던 백합화는 「독신여성의 생활」의 필자이기도 하다. '연애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나는 실연 같은 아픈 경험도 없이 다만 단순하고 결백한 쾌락에 꺼리어 이십 오세를 먹었다'는 이 여성은 '오직 순결한 천연 그대로 신성한 생활을 하면서 남자와 비등한 사업을 해 보겠다는 것이 독신생활을 하려는 주견'이라고 밝힌다. 이 글의 필자는 '순결, 천연, 신성, 자유'라는 가치를 숭상하고 '독서, 음악, 동무들'을 의지하고 살며 사치한 의복을 입고 싶지도 않고 남자가 귀찮고 우스울 뿐 아니라 결혼생활이 좋지 않게 생각된다고 썼다. 「애의 추회」에서 주인공 여성이 연애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애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글이다.

이 글은 교육받은 여성은 개인보다는 사회를 위해 살아야한다, 연애나 결혼 같은 개인의 일보다는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더 보람 있는 일이다, 여자로서 사치한 의복을 입고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나 남자에 관심을 갖는 일은 대범하지 못하다, 독서나 음악은 여성에게 어울리는 고상한 일이다 등 배운 여성이 갖는 다층적 강박관념들을 잘 보여준다. 결혼한 친구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도 굳이 결혼을 부정하는 이 글은 교육받은 여성의 억압된 의식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여성의식을 체화하고 이념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데는 시간의 경과와 시행착오가 필요한 법이다.

김일엽은 서간문 형식의 「K언니에게」에서 원만하지 못한 결혼생활로 고통 받는 언니에게 직장을 갖고 독신생활 할 것을 권하고 있다.

우리 여자도 이 세상에 당당한 인격자로 살아가자면 어찌 남자에게만 의뢰하는 비열한 행동을 감히 하리까. 독립독행으로 사회에 입각지를 세우고 고상한 사업에 공헌하여 각성한 여자계에 표준적 인물이 되면 자연 남자의 반성과 인식을 얻게 될 것이로소이다. 이것이 우리 신여자가 시험할 천부의 사명이 아니리까.²¹⁾

이혼의 상황에 놓였으니 재가할 수는 있지만 어울리는 독신자를 찾기 어렵고 남의 첩이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현실인식은 냉정하지만 명확하다. 당시 동경유학을 한 신여성들이 유부남들과 사귀며 구설수에 오른 것은 동경의 남자 유학생들이 모두 조혼을 했기 때문이다. 대화가 통하고 뜻을 같이 하는 학우들이었던 그들의 교유는 출발부터 처녀와 유부남이 사귀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주은월의 수필 「행복스런 가정」은 새로운 주부상과 변화된 가정생활을 밝은 필치로 보여준다. 처음에는 교사인 남편과 여학교 출신의 아내가 사는 가정을 보고 '저희끼리 눈이 맞아서 같이 산다더군'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던 동네 사람들이 '젊은이들끼리만 밤낮 그렇게 웃고만 지내니까 재미있겠어' 하며 부러워하게 된다. 더욱이 '순사가 와서 무어라 하든지 우체부가 편지나 전보를 전하고 가면 꼭 그 집 트레머리 한 부인에게로 불으러' 가거나 세금을 부인이 관청에 가서 직접 내고 물건도 사러 다니고 급한 편지는 남편 대신 쓰고 위생적인 생활을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여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마침내 이 집은 '행복스런 가정 / 삶답게 사는 사람 / 지상 천국 / 시다운 생활을 하는 가정' 등의 찬사를 받게 된다.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상을 보여줌으로써 근대적 가족의 상을 제시하는 이 글은 여성 교육의 최대 과제가 현모양처 양성이었던 것처럼 스위트홈의

21) 김일엽, 「K언니에게」.

이상 역시 현모양처를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선전함을 보여준다. 신여성은 이처럼 사적 노동공간에서 자족적인 생활을 할 때 교육의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²²⁾이다.

이상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글쓰기 방식으로 여성이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직업인이 되거나 독신으로 독자적 생활을 해나가기도 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을 새롭게 이끌어나가는 등 여성영역의 확대상을 보여준다. 여성은 가정 안에서 밖으로 나가 교육을 받고 다양한 삶을 영위하게 되었고 소신 있는 삶의 주체로 살게 된 것이다.

Ⅲ. 여성지 『신여자』의 위상

신문이고 잡지고 남성들이 모두 경영하고 만들지만 아직 우리 손으로 된 것은 두서너개 지나지 못합니다. 그것도 오로지 우리 붓으로 쓰고 만든 것이라 할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적절한 요구에서 이 결함을 보완키 위하여 『신여자』란 잡지가 지난달에 일호를 머리로 하여 청탁들의 작품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과 동시에 파문된 천재들을 출현시키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내부생활을 절실하게 씬에는 이를 제하고는 없습니다.²³⁾

페미니즘의 확산으로 한국사회에서 여성파워가 날로 역량을 펼치는 오늘날이 있기까지는 여성운동의 초석이 되었던 신여성들이 있었다. 특히 김일엽은 개인을 넘어선 여성 연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으며 1920년 여성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여성지 『신여자』를 창간했다.

『신여자』는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의사개진의 장을 제공하고 문단활동의 장으로도 기능했다. 여권의식의 확산과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잡

22) 태혜숙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여이연, 2004), pp.183~184.

23) 심사, 「당면의 문제」.

지로서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고루 수행한 것이다. 지식인 여성들의 여권의식 주장만으로 그치지 않고 일반 여성들에게 글을 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후기에서 반복적으로 피력함으로써²⁴⁾ 여성간의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 의식의 저변확대와 여성의 사회 참여 등을 이끌어내려는 의지가 보인다. 물론 당시 여성들의 문맹률이 매우 높았고 교육받고 글을 쓸 수 있는 여성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의도가 4호를 발간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결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 여성 대중을 필자로서 독자로서 아우르겠다는 김일엽의 목표는 명확했고 이는 독자에게 지면을 제한한 잡지와는 명확한 차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점이다.

김일엽은 『신여자』를 발간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여성 잡지인이 되었다. 잡지의 창간이란 개인의 글쓰기를 넘어서는 일이다. 즉 자본이라는 물질 토대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한 시대와 사회에 하나의 담론을 형성할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어야 하며, 일정한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데다가, 필자 구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수준의 문필력까지 갖추어야 하는 잡지의 창간이란 가히 여러 면모에서의 지도자급 인물에세나 가능한 일이었다. 김일엽은 잡지를 창간함으로써 당시 조선 사회의 정신적 현실적 여성 지도자로서 그 역할과 능력을 사회에 공개적으로 알린 셈이 되었다. 근대 여성지로서 포문을 열었던 『신여자』의 위상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이는 『신여자』에 글을 실었던 당시 여성들의 글쓰기 양상의 특성이자 의의이기도 하다.

첫째, 『신여자』의 탈남성적 의도의 중요성이다. 엘렌 씨씨가 지적하듯이 여성은 자기 자신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여성은 여성에 관해

24) 이는 『여자계』가 독자투고를 허용하지 않고 엘리트 여성들만의 제한된 지면으로 삼고자 했던 것과는 매우 차별화되는 것이다. / 박지영, 『신여성』지의 '독자투고'문을 통해서 본 여성적 글쓰기의 형성과정, 『여성문학연구』 12호(2004.) p.345.

써야 하며 여성을 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식민지 시대에 우리의 언어로 말하고 글쓰는 일이 억압당한 것처럼 여성도 여성의 글쓰기를 억압당해 왔다. 이를 넘어서려는 의도가 신여성들의 글쓰기에는 강하게 배어 있으나 언어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다수의 남성에게 의해 폄하당했다. 이것이 여성 텍스트 『신여자』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신여자』는 여성 문제를 여성의 시각으로 보고 여성의 표현방식으로 쓴 여성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진정한 여성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했다.

둘째, 모든 여성을 함께 아우르는 자매애적 시각이다. 모든 여성에게 글을 받는다는 공고를 매호에 싣고 있는 『신여자』는 소수의 엘리트 그룹만을 위한 잡지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표지에 ‘부녀잡지 신여자’로 표기함으로써 이러한 의도를 명확히 했다. 또한 『신여자』는 국내의 여성은 물론 외국 여성의 글을 번역 소개함으로써 외국문물을 소개하고 교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지식의 유무와 계층의 차이와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는 범여성연대 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셋째, 해체론적 시각의 중요성이다. 의식의 지향점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함께 아우르고 있는 『신여자』는 근대 한국여성의 삶의 지평을 이해하는 자료로서의 중요성을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시각이 가지는 선진성으로도 주목하여야 한다. 그 이념은 중심적인 것의 주변부에 대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식인의 비지식인에 대한, 이념의 생활에 대한, 권력 있는 자의 없는 자에 대한 우위를 뒤집어보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넷째, 다양한 글쓰기 방식의 중요성이다. 여성의 글쓰기는 대체로 자전적 글쓰기의 성격이 강한 에세이에서 시작한다. 시나 소설의 형식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도 내용이나 표현상으로 자전적 성격이 강하다. 『신여자』는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장르 외에도 편지, 일기, 수기, 우스개 소리 등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방식의 글을 게재하였다. 논리보다 감정의

의 흐름을 중시하거나 객관과 주관이 뒤섞인 글쓰기 방식은 기존의 남성중심적 글쓰기에서는 저급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신여자』에서는 여성들의 그러한 자유로운 언술 방식을 모두 수용했다. 여성적 글쓰기를 공적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작업이 여성운동의 주요 과제라고 할 때 『신여자』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논리와 이념을 바탕으로 한 논설 쓰기는 여성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글의 형식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위상을 제고하고 남녀평등을 주창하며 여성의 변화와 진보를 각성시키려는 의도를 피력하는 직접적인 언술행위인 논설은 『신여자』의 중요한 분야이기도 했다. 대부분 김일엽의 글인 창간사를 비롯하여 권두언들, 그리고 논설들은 『신여자』의 여성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혁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신여자』는 최초의 여성잡지라는 역사적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근대 여성담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진정한 여성지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본고는 『신여자』 1호 연구에 이어 이루어진 2호 연구이고 3호와 4호에 대한 연구를 후속과제로 삼고자 한다. 4권 모두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신여자』의 실체를 좀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자료 : 『신여자』 1~4호(신여자사, 1920.3~6월).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현실문화연구, 2003), p.8.

김경수, 『페미니즘과 문학비평』(고려원, 1994), pp.12~13.

김성곤, 『포스트모던 소설과 비평』(열음사, 1998), p.159.

문옥표 외, 『신여성』(청년사, 2003), p.55.

바렛, 미셸, 신현옥 외 역,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여성사, 1995), pp.76~77.

오스틴, 제일, 심정순 역, 『페미니즘과 연극비평』(현대미학사, 1995), p.88.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소명출판, 2002), pp.70~72.

정선태, 『심연을 탐사하는 고래의 눈』(소명출판, 2003), p.24. p.47.

태혜숙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여이연, 2004), pp.183~184.

박지영, 『신여성』지의 ‘독자투고’문을 통해서 본 여성적 글쓰기의 형성과정, 『여성문학연구』 12호(2004), p.345.

박혜숙,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여성문학연구』 8호(2002), pp.8~9.

유진월, 김일엽의 『신여자』 출간과 그 의의, 『비교문화연구』 5호(2002), p.78.

이태숙, 여성해방론의 낭만적 지평, 『여성문학연구』 4호(2000), p.185.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men's writings in modern times on 『Sin Yeo Ja』

Yoo, Jin-Wol

Kim, Il-Yup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woman regiment which passes over the individual deeply. She started a monthly publication 『Sin Yeo Ja(New Woman)』 which was the first magazine published by woman. It offered women the space of free thought statement and the space of the literary world activity. It contributed at a diffusion of the woman right consciousness and a society public opinion formation. It accomplished social political culture facility as the magazine. I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woman of the alternating current. And it wanted the base extension of a woman consciousness. It supported goal which draws a society involvement of the woman. It revealed the thought of the woman and the life of the woman earnestly by woman's writings. After all, 『Sin Yeo Ja』 is full-scale woman magazine.

The meaning of 『Sin Yeo Ja』 which started as a modern times woman magazine is following. It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aspect and meaning of that time women's writing, too.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its get out of man intention. It saw a woman problem as the woman's view and published the text of the woman. It made efforts to accomplish the role as real woman's magazine. It had sisterhood's view. It transcends with the existence of the knowledge, with the difference of the hierarchy and with the human race and the nation. Its

center idea leads us to the reflection about the predominance of the man, the intellectual, the idea and the power.

We can find the importance of the various writing method. It published free text not to be restricted at existing frame. It was the task to extract to the space of an public discourse the woman's writing. And it is a main subject of the woman movemant. It has historical meaning the initial woman magazine. It accomplished the role as space of a modern times woman discourse. We value it as a real woman's magazine and the women's writing, too.

key words : modern times, woman's magazine, woman's writing, woman's discourse, sisterhood, Kim, Il Yup, Sin Yeo Ja.

■ 본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0월 2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11월 1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